

老

人

이

야

기



徐炳淑

〈漢陽大교수·家庭管理學〉

나의 친정어머니는 올해 아흔세살이 되셨다. 어머니가 막내딸인 나를 낳고 시집이나 보낼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막내딸은 어느덧 50이 넘었고,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딸도 알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노쇠현상이 왔다.

당당하시던 어머니는 아주 껌질만 남은 것 같이 조그마한 체구로 변하셨고, 그래도 그동안까지는 대소변도 가릴 정도는 되었는데, 이제는 그 조절능력마저 상실되었고 단지 음식에 대한 병적인 욕구 이외는 모두가 사라져 버렸다.

현철하고 깔끔하기로 소문났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한 치매현상에 이르렀을까? 친정에 다녀오고 난 뒤에는 老人性 치매현상속에서 사는 어머니가 가여워서 울고, 묵묵히 보살펴드리는 반백의 올케언니가 불쌍해서 울게 된다.

이러한 아픔이 남편과 아이들을 핑개치고 1년간 외국에 가서 老人問題를 연구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내가 보았던 이웃 日本의 노인성 치매현상의 노인 50명을 수용하고 있는 老人Home에 갔을 때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가여울 수가 없었다. 좋은 시설에 전문교육을 받은 寮母가 서비스를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도 나의 감각으로는 집단적으로 모인 老人들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었다. -대단히 솔직한 심정이다.-

老人이란 어린아이와 젊은이 그리고 장년 등이 충충이 섞여 있을 때 調和를 이루어 아름답고 고상하게 보이는 것이지 저렇게 「망령난 老人」의 집단을 대했을 때 시설과 서비스가 우월하다 해도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둠같은 것이 짙게 깔리고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老人이 되고 싶지 않다」는 바램과 「어차피 노인이 된다」라는 필연적인 예측 사이에 너무나 커다란 거리가 있음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나 老人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문제」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 老人문제이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오는 비극인지도 모른다.

흔히들 중년 이전의 世代에서는 「나는 老人이 될 때까지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실을 피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부자유스러운 인간끼리의 살생이 야기되지 않는 한 老人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더우기 의학이 급속히 발달하여 사망율이 저하하면 老人인구의 팽창은 놀라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노후생활에 직면할 공산이 큰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老人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老人이 될 때는 「지금과 같은 老人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노인상이 다르게 될 것을 기대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老人과는 다른 삶의 방법을 취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老人問題가 없어지지는 커녕 오히려 아주 다른 老人문제가 발생할런지도 모른다.

또한 막연 하나 「내가 老人이 될 때」는 사회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老人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해 본다.

즉, 오늘날 보다는 더욱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인간으로 존중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고, 老人은 老化도 안되고 사회적으로도 방해자가 안되며 노후생활은 사회보장에 의하여 불안없는 사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老人문제는 非老人세대가 사회문제로 삼아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老人문제는 매우 어려움이 크다.

老人的 심정은 老人이 되지 않고서는 모르고 老人이 되고 난 뒤에는 아무도 老人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노인문제의 어려움이요, 사회문제로 명확하게

부각시키지 않는 커다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非老人들이 老人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망령난 노인이 얼마나 있고 누가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도대체 조사, 연구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老人과 同居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에서는 망령난 노인의 증가현상에 누가 몹시중을 들 것이냐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실제로 딸과 며느리가 시중을 들어야 할 장본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아주 상노인을 보살피는 중노인이 먼저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老人을 잠깐씩 맡길 수 있는 Short-day Service기관이라든지 목욕침대에 누운 상태로 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목욕시설이 공공기관에 마련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老人이 싫어하는 사회기관에 위탁하지 않은채 각 가정에서 家族들의 보살핌 속에서 老人과 非老人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기업측에서도 이제는 老人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老人복, 침구, 지저귀카바 등을 고안하여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시장이나 백화점 어디를 가도 그 많은 상품 가운데 노인을 위한 용품이 고가의 약제나 외출용으로 쓰일 수 있는 사치품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던가. 우리 非老人세대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老人문제는 非老人세대가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취급하고 어떠한 국민적 관심과 운동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실천적 과제가 될 것이다.